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013 - 21
------------	-----------

발의일자 : 2013. 3. 29.

제 안 자 : 최영자의원 외 19명

1. 주 문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강서구 전체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5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관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재산세율이 낮은 지방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기본권 박탈과 재산상의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음.
- 이에 강서구의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김포공항으로 즉각 이전할 것과 강서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함.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

1950년 개항한 김포공항은 지난 6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교통수단의 중추적인 역할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어왔다.

강서구 전체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53조원에 이르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19일 박원순시장은 강서구 주민과의 지역현안 정책토론회에서 “마곡지구는 강서구의 금싸라기 땅이며, 서울시 전체의 보물이자 미래를 약속하는 땅“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그러나 마곡지구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15층 정도의 건축물만을 건립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어 개발이익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관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재산세율이 낮은 지방도시로 이전하여 왔다.

2001년 양사의 항공기는 150여대로 재산세 부과를 하였으나 2012년 말 기준 86대로 축소되어 구세 수입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기본권 박탈과 재산상의 심각한 고통을 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자사 이익에 급급하여 우리구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 전원은 57만 강서구민의 행복 추구하고 더 이상의 지역슬럼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김포 공항으로 즉각 이전하라.
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강서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나눌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라.

2013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